

휴가 때 독버섯, 벌쏘임·뱀물림 조심하세요



독우산광대버섯(독성)



흰주름버섯(식용)



개나리광대버섯(독성)



노란달걀버섯(식용)



노란개암버섯(독성)



개암다발버섯(식용)



산검양꽃나무(알레르기 유발)



환상덩굴(알레르기 유발)

국립공원관리공단

독성 동·식물 사고 대비

행동요령 주의 당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독성 동·식물에 의한 사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독성 동·식물에 대한 행동요령을 내놓고 주의를 당부했다.

4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독성 동·식물에 의한 주요 사고는 독버섯 중독, 말벌 등에 의한 쏘임, 뱀 물림, 알레르기식물 접촉 등이다.

고온 다습한 야영장 주변이나 산에서 자라는 버섯은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채취한 버섯 일부에 독버섯이 섞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영장 주변에서 서식하는 독버섯은 어린이 등이 무심코 먹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지난 2014년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04~2013)간 독버섯 중독사고는 53건으로 204명의 환자가 발생, 이 가운데 23명이 숨지기도 했다.

독버섯 중독 사고의 경우 섭취 후 30분~3시간 이내의 중독 증상은 2~3일 내 자연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6~8시간 이후 중독증상이 나타나면 매우 심각하고 치명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독버섯을 섭취했을 때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먹고 남은 버섯을 병원에 가져가 신속한 독성

파악이 이뤄지게 해야한다. 이송 전 환자가 의식이 있고 경련이 없으면 물을 마시고 토하게 해야한다.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리는 사고도 주의해야한다. 야영장의 지정된 지역을 벗어나거나, 정규 탐방로가 아닌 샅길 등을 이용하면 말벌이나 땅벌 등에 쏘일 확률이 높아진다. 올 여름은 긴 가을에 이어 장마철에도 비가 내리지 않은 날이 많았다.

일단 벌집을 발견하면 제거하지 말고, 국립공원사무소나 소방서에 연락해야 한다. 벌을 자극하지 않으려면 뛰지 말고, 최대한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 벌집이 있던 자리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 벌은 귀소본능이 있어 벌집이 제거된 후에도 2~3시간 정도 자기 집이 있던 자리를 배회하기 때문이다.

독사는 살모사류가 대표적이다. 뱀에 물리면 3~4시간 안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건강한 사람은 독사에 물려도 바로 사망할 가능성이 적다.

독성이 있거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물도 요주의 대상이다. 외과 가시에 포름산이 들어있는 쐐기풀,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환상덩굴과 돼지풀 등이 대표적이다.

독성 동식물 피해를 예방하려면 민소매나 반바지보다는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고,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원색의 화려한 옷은 곤충을 유인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향수나 향이 많이 함유된 비누·샴푸·로션은 곤충을 유인해 벌레에 물리기 쉽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완도 소안도서 멸종위기 붉은발말뚝게 발견

완도군 최남단에 위치한 소안도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붉은발말뚝게(사진)가 발견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안 소안도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붉은발말뚝게' 서식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붉은발말뚝게는 마을에서 내려오는 안근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의 갈대숲에서 발견됐다.

붉은발말뚝게는 길이 28mm, 너비 33mm 가량으로, 갑각 앞쪽과 집게다리의 집게가 붉은색을 띤다. 붉은 발을 가졌고, 말뚝 뱀새가 난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잡식성으로 지렁이, 죽은 물고기, 식물 잎 등을 먹는다. 서식 조건이 까다롭고 개체 수가 매우 적다. 바다로 흘러드는 작은 하천 하류의 돌담, 풀숲 등에서 서식한다.

이 게의 주요 서식지인 강하구 주변과 바다로 연결된 소하천 주변이 1960년대 이후 개발 때문에 사라지면서 개체도 자취를

감췄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붉은발말뚝게는 남해 서부와 서해 중부 이남의 연안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도해국립공원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게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다. 2급은 개체 수가 현저히 줄어 위협 요인이 제거·완화되지 않으면 멸종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생물이다. 1급은 위협 요인으로 인해 개체 수가 현저히 감소해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탈핵·에너지분야 활동가 모집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은 탈핵·에너지분야 활동가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녹색운동에 열정을 갖고 녹색연합 강령(네이버 카페 참조)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류 접수는 오는 20일까지이며,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는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접수는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 직접방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남 녹색연합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greenunited)나 광주전남녹색연합(062-233-6501)으로 문의하면 된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개발주의에 맞서 못 생명 지키는 일에 동참하길 바라며, 자신의 삶을 녹색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야라면 누구라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국립공원 비경 앵글에 담아보세요

제14회 사진공모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생태계 모습 등을 주제로 '제14회 국립공원 사진공모전'을 연다.



제 13회 공모전 대상작 '운해넘는 가야산'

국립공원의 자연경관, 자연생태, 역사문화 자원 및 공원 이용 모습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해 출품이 가능하고 총 80점씩을 선정할 예정이다. 출품 희망자는 공단 사진 접수 누리집(contest.knps.or.kr)을 통해 오는 1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최근 3년 안에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출품이 가능하며, 개인당 10점 이내로 제출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다.

대상 작품에는 환경부 장관상과 500만원의 부상을, 최우수상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300만원의 부상을 수여하는 등 총 4000만원의 상금을 시상한다. 당선작은 9

월 말 사진 접수 누리집에서 공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도 개별 통보된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2-3279-284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단 측은 동물학대, 자연훼손, 통제구역 출입 등 사진 촬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생태분야 전문가를 위촉, 심사위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남도 생태탐방 체험 스토리' 공모전

영산강유역환경청, 전국 청소년·일반인 대상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남도의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알리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청소년(중·고·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남도 생태탐방 체험 스토리'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공모전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남도 생태관광지역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과 일반인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남도 생태관광지역은 순천만, 신안 영산도, 남해 앵강만, 제주 선술리 동백동산, 제주 서귀포시 하례리 등이다.

생태관광지역에서 얻은 체험을 포토에세이(A4 10장 내외) 또는 UCC(CD 1장),

수필(A4 5장 내외), 만화·웹툰(A4 20장 내외)등으로 작성해 응모하면 된다. 출품작은 미발표된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응모기간은 오는 10월 30일까지다.

참가신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누리집 등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받아 이메일(lily0075@korea.kr)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응모작품은 1, 2차 심사를 거쳐 13개 작품을 최종 선정하게 되며 수상자에게는 환경부장관 권 등 부상도 주어진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무더운 여름, 숲속에서 하룻밤을...

광주전남녹색연합, 내장산국립공원서 1박2일 캠프 진행

무더운 여름, 숲 속에서의 하룻밤은 어떨까. 모두가 잠든 캄캄한 여름 밤, 숲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풀벌레를 비롯한 곤충들은 뭘 하고 있을까. 밤에 조용히 피어나는 꽃들은 어떤 모습일까.

한여름 숲 속의 밤을 체험하는 녹색 캠프가 열린다. 광주전남녹색연합은 '여름, 밤, 숲에 들다'라는 여름 캠프를 진행한다. 내장산국립공원에서 열리는 캠프는 오는 14, 15일 1박2일 일정이다.

낮엔 계곡물에 발 담그기, 어둠이 깔리면 숲 속에서 풀벌레를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구름이 없다면 도심과는 비교할 수 없이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볼 수도 있다.

어른, 어린이 가리지 않고 30명을 모집하며, 가족 단위로 참가 가능하다. 단, 참가비가 입금돼야 접수가 완료된다.

참가비는 녹색연합 회원 2만원, 비회원 3만원 (광주은행 003-107-304283 광주전남녹색연합)이다.

문의나 접수는 광주전남녹색연합 정미선 활동가(062-233-6501, 010-3629-3875)에게 하면 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12는 신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파리향 바깥 5회연속 선정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